

『湖南節義錄』에 관한 研究*

A Comprehensive Study on *Honam Jeoluirog*

盧基春 (Roh, Ki-Chun)**

◁ 목 차 ▷

- | | |
|---------------------------|--------------------|
| 1. 緒論 | 4. 內容分析 |
| 2. 編纂背景 및 刊行 | 4.1 5亂事 각 事實別 殉倡者數 |
| 3. 『湖南節義錄』의 編成體制 및 本文의 比較 | 4.2 지역분석 |
| 3.1 編成體制 | 5. 結論 |
| 3.2 本文의 比較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연구는 1799년 高廷憲이 편찬한 『湖南節義錄』에 대하여 편찬배경 및 간행처, 간행 시기, 편성체제와 내용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湖南節義錄』은 壬辰倭亂, 李适의 亂, 丁卯胡亂, 丙子胡亂, 李麟佐의 亂 등 5亂이 일어났을 때 활약한 호남 지방 의병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으로, 1799년 여름 順天 松廣寺에서 初刊하였음이 밝혀졌다. 현존하고 있는 5卷 5冊本 『湖南節義錄』은 수록된 <序文>의 數에 있어서 차이만 있을 뿐, 본문의 내용이 모두 동일한 판본으로 확인되었으며, 총 130여 곳에서 원문에 차이가 있는 藏書閣 소장본은 初刊本을 校訂 補刻한 後刷本으로 확인되었다. 『湖南節義錄』에는 殉節者 374명, 功勳者 1,086명, 총 1,460명의 殉倡者가 수록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殉倡者를 배출한 지역은 靈光, 長興, 寶城, 羅州, 南原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要語: 湖南節義錄, 壬辰倭亂, 丁卯胡亂, 丙子胡亂, 高廷憲, 李适, 李麟佐

* 이 논문은 2008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토대연구)(과제번호: H00001)>.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강사(rohhide@hanmail.net)

접수일: 2009년 12월 5일 최초심사일: 2009년 12월 6일 심사완료일: 2009년 12월 11일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comprehensively the background, place and date of publication, organization, and contents of *Honam Jeoluirog*(湖南節義錄) compiled by Go Jeongheon(高廷憲) in 1799. It is revealed that *Honam Jeoluirog* recorded the activities of civilian armies which rose in the cause of justice in the Honam Province during five wars and rebellions, that is,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Chinese Invasions of Korea in 1627 and 1636, the rebellion of Yi Gwal, and the rebellion of Yi Injwa, and was first published at Songgwang-sa in Sunchoen in 1799. It was confirmed that all the remaining editions of *Honam Jeoluirog* of 5 books in 5 volumes are the same editions with only a sligh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Prefaces(序文)' included, and the edition held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ith the difference in about 130 places of original texts was the revised and supplemented print of the first edition. In *Honam Jeoluirog*, recorded are a total of 1,460 persons killed during these wars and rebellions, of which 374 persons died in defense of their chastity and 1,086 fought for the cause of justice. And it was revealed that the areas with the most deceased are Younggwang, Jangheung, Boseong, Naju, and Namwon in order of the number of the deceased.

Key words: Honam Jeoluirog,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repeated war in the Year of the Fowl, Chinese Invasion of Korea in 1636, Go Jeongheon, Yi Gwal, Yi Injwa

1. 緒論

「湖南節義錄」은 壬辰倭亂(1592년), 李适의 난(1624년), 丁卯胡亂(1627년), 丙子胡亂(1636년), 李麟佐의 난(1728년) 등 5亂이 일어났을 때 활약한 호남지방 의병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1592년 壬辰倭亂이 발발하자 6,000여명의 의병을 이끌고 錦山에서 왜적과 싸우다 전사한 의병장 高敬命(1533-1592)의 7대손 高廷憲(1735-1819)이 1799년에 편집, 간행한 것으로, 현재 국내에 소장하고 있는 「湖南節義錄」은 모두 高廷憲이 1799년에 편집, 간행한 판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필자는 김동수 교수¹⁾로부터 1799년 고정헌이 편찬한 「湖南節義錄」이 언제, 어디에서 刊印 되었는가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全南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湖南節義錄」(호안 OC2H1 호211 ㄱ)과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所藏本 「湖南節義錄」(K2-491)을 상호 비교해 본 결과, 본문에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판본을 정본으로 볼 것인가와 같은 「湖南節義錄」에 대한 종합적인 판본 고증을 요청 받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湖南節義錄」의 편찬배경과 둘째, 언제, 어디에서 간행되었는가를 규명해 보고, 셋째, 국내에 현존하고 있는 「湖南節義錄」의 편성체제를 상호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밝히며, 넷째, 본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판본을 상호 비교하여 판본의 先後를 고증해 보고, 다섯째, 선정된 판본을 대상으로 5難事에 참여한 호남의병들의 인원수와 출신지별 인원수를 밝혀보고자 한다.

2. 編纂背景 및 刊行

「湖南節義錄」의 편찬배경에 대해서는 高廷憲이 쓴 <序文>에 비교적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그는 「湖南節義錄」을 편찬한 배경에 대해,

1)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세상의 이야기 항상 호남에 충의가 많음을 말하니 대개 나라에 큰 난리 있으면 필히 충절이 드러난다. 대저 만력 임진으로부터 승정 병자에 이르기까지 40여년 간, 섬 오랑캐와 같은 화는 근 8년을 끌었고, 오랑캐의 변란 또한 장장 10년을 지속하였으며, 그리고 갑자와 무신에는 거듭 난적들의 간출하였다. 임금의 몽진 또는 파천할 때에는 문득 정충위절들이 남쪽 고을에서 나옴이 있었다. … 모름지기 우리 열성들은 상충보공으로서 臣子들을 격려하는 방법을 삼았다. 그러나 그 포전의 계책을 두었지만, 또한 빠지거나, 알려지지 않아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자가 있다. 갑자, 정묘, 병자는 모두 거의록이 있어, 그 후일의 일을 함께 병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3년 사실이 각자 편으로 되어 일체의 의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 사람들이 이 절의를 열람하면, 적연히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의 중함을 생각하고, 유연히 충의의 마음이 생겨날 것이다. 이 책은 스스로 위험을 잃지 않는 뜻이 있으며, 또한 인신에게 첫째로 의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 비록 보잘 것 없는 책이지만, 그 자뢰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은 돌아 보아도 아름답지 않겠는가? … 선열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무너뜨리지 않을려면, 마땅히 이 호남절의록으로 증거를 삼아야 할 것이다.”²⁾

라고 하였다. 즉 호남은 國難이 발생하면 충절이 드러나는 고장으로 1592년 임진왜란과 1624년 李适의 난,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1728년 李麟佐의 亂까지 호남에 수많은 忠義志士들이 출현하였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성들은 충의지사들에게 포전의 계책을 마련하였지만, 누락되거나 밖으로 알려지지 않아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충의지사들이 있었다. 특히 1624년 甲子에 일어난 李适의 亂, 그리고 1627년 丁卯와 1636년 丙子에 일어난 建虜의 變亂에 창의한 舉義錄이 있지만, 이들 舉義錄이 각각의 冊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 1728년 戊申에 일어난 李麟佐의 난이 발생하였을 때, 참여한 舉義者들을 병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舉義者들의 의로운 舉事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책을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책은

2) 『湖南節義錄』 <高廷憲序文>. “世之譚者恒言湖南多忠義蓋以國有大難則必有忠節顯也上下四十餘年之間不弔我皇朝時運將迫故東方氣數亦與之相關如島夷之禍殆近八年建虜之變又將十年而甲子戊申則復有亂賊之間出使至尊蒙塵大駕播越而時則有精忠偉節輒出於南州 … 惟我列聖以向忠報功爲激勸臣子之方贈其爵秩錄其子孫 … 其在褒典之計則亦有闕漏嗚呼不章於世者矣 … 惟甲子丁卯丙子皆有舉義錄是其後日併之所共刊行然而三難事實各自爲編無以見一體之義是錄也 … 人之覽是錄者惕然思綱常之重油然而生忠義之心方今昇平日久百年無疆域之虞此正識者隱憂於恬愜而忠節一部自有不忘危之意亦可爲激勵人臣第一義則是雖寂寥篇帙而之所以有賴者顧不偉歟南州章甫將劊劊而壽其傳 … 思不墜前烈也當以此錄爲徵焉.”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와 충의의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하여, 나라에 위협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잃어버리지 않게끔 할 뿐만 아니라, 신하들에게 의를 격려하기 위해 편찬하였음을 편찬저의로 밝히고 있다.³⁾

한편, 「湖南節義錄」의 간행에 관련하여, 고정현의 <序文>을 살펴보면,

“... 남쪽 고을의 유생들은 장차 판각하여 오랫동안 전해야 할 것이다.”⁴⁾

라고 언급되어 있다. <序文>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간행처와 간행년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정현이 <序文>을 쓴 1799년 이후에 간행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필자는 본 연구를 진행하던 중 ‘문화예술장흥동호인회’가 운영하는 카페인 <藝長會>⁵⁾의 자료실에 5卷 5冊(仁·義·禮·智·信)의 「湖南節義錄」⁶⁾이 올려져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이 책은 충북 음성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의 소장본을 宇軒 홍성호 선생이 촬영하여 올린 것⁷⁾으로, 책의 인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板刻 후 곧바로 인쇄한 初刊本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수록된 7매의 사진 가운데 아래 <그림 1>과 같이 2卷(義冊)의 表紙裏面에는 “己未仲夏印出于順天松廣寺”라고 墨書되어 있는 바, 己未年 여름 전라도의 순천 송광사에서 인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2卷의 표지 裏面에

3) 김정림은 “湖南節義錄의 性格에 관한 研究”에서 編纂動機에 대하여 名分的인 動機와 實際的인 動機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名分的인 動機는 先血들의 義를 後世人에게 전해 줌으로써 앞으로의 위협에 대비하도록 했으며, 나아가서는 사람이 행하여야 할 道德과 忠義의 마음을 강구하고자 하는 道德的인 입장에서 編纂되었고, 實際的인 動機는 ①先代の 훌륭한 功績을 과시함으로써 門中の 명예로 삼으려는 의도 ② 당시 兩班들이 그들의 身分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 ③ 地方意識의 發露에서 編纂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김정림, “湖南節義錄의 性格에 관한 研究-收錄된 人物들에 대한 分析과 관련하여-,” (碩士學位論文,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981),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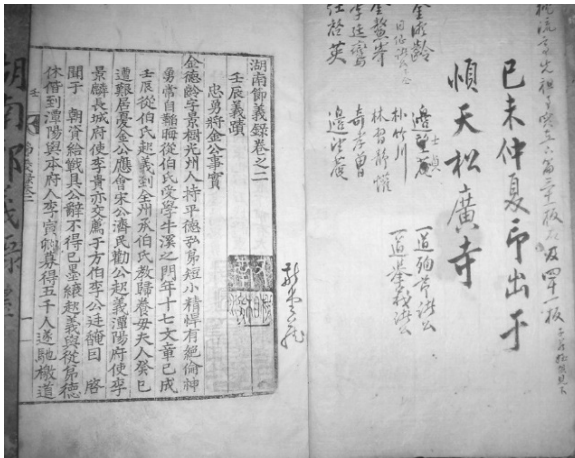
4) 「湖南節義錄」<高廷憲序文>. “是錄也始於壬癸終於戊申而參考百家記節彙爲一編以著前後之蹟… 南州章甫將劊劊而壽其傳.”

5) <<http://cafe.daum.net/yejanghoi>>.

6) <<http://cafe.daum.net/yejanghoi/1g71/6>>.

7) 필자가 홍성호 선생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였음.

목서된 己未年은 西紀 年代로 정확히 언제인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개인 소장본이 초간본임을 고려해 보면, 己未年은 고정현의 <序文> 末尾에 수록된 “崇禎紀元百七十二年仲春己亥 …”, 즉 崇禎 紀元 172년인 1799년과 己未는 완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湖南節義錄』은 고정현이 <序文>을 완성한 1799년 仲春에 편찬되었고, 같은 해인 1799년 仲夏에 전라도 순천 송광사에서 初印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1> 개인 소장본 「湖南節義錄」印刷處 墨書

그러면 『湖南節義錄』은 어디에서 판각하였는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1799년 仲春에 편찬되어 仲夏에 순천 송광사에서 初印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冊板 또한 순천 송광사에서 판각하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시대에 寺刹은 인쇄 출판의 한 축을 담당하였던 대표적인 곳으로, 僧寶 사찰인 순천 송광사는 조선시대에 76종의 불서와 7종의 시문집 등 총 83종의 전적을 간행하였다.⁸⁾ 특히 『湖南節義錄』이 간인된 1799년은 송광사의 제5중창 가운데 第3期

8) 盧基春, “順天 松廣寺 開板佛事に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25집(2003. 6), 4.; 盧基春, “順天 松廣寺 開板佛事に 관한 연구(II),” 『서지학연구』 26집(2003. 12), 306.

開板佛事(1791-1801)에 해당하는 시기로, 1799년 한 해에 「高麗國普照禪師修心訣」, 「妙法蓮華經(諺解本)」, 「眞心直說」 등 3종의 진적을 간행하였는 바, 1799년 7월에 간인된 「妙法蓮華經(諺解本)」에는 刻手 29명과 鍊板者 2명 등 총 31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⁹⁾ 따라서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湖南節義錄」은 1799년 여름 順天 松廣寺에 소속된 刻手 및 鍊板者를 동원하여 판각하였고, 인쇄 또한 松廣寺가 주관한 것으로 보인다.¹⁰⁾

3 「湖南節義錄」의 編成體制 및 本文의 比較

3.1 編成體制

국내 기관에 소장하고 있는 5卷 5冊本 「湖南節義錄」은 크게 <序文>, <凡例>, <湖南節義錄總敍>, <本文> 등의 순으로 편성되어 있는 데,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序文>은 아래 <표 1>과 같이 각 기관의 소장본들은 <序文>의 수록 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고려대학교 소장본¹¹⁾의 경우 領議政 李秉模(1742-1806)의 序文(1800)¹²⁾과 議政府 左參贊 洪良浩(1724-1802)의 序文(1799),¹³⁾ 壬辰倭亂 때 순절한 高敬命의 7대손 高廷憲(1735-1819)의 序文(1799),¹⁴⁾ 承政院 右副承旨 柳匡天(1732-?)의 序文(1798),¹⁵⁾ 同知中樞府事를

-
- 9) 盧基春, “順天 松廣寺 開板佛事に 관한 연구(II),” 『서지학연구』 26집(2003. 12), 306.
10) 順天 松廣寺에서 冊板을 판각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자료가 발견될 때까지 일단 추정 결과로 남겨두고자 한다.
11)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한적실 소장본(만송 B12 A99 1).
12) “上之二十四年庚申(1800)大臣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李秉模序.”
13) “上之二十三年己未(1799)崇祿大夫行議政府左參贊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洪良浩序.”
14) “崇禎紀元百七十二年(1799)仲春己亥霽峰七代孫高廷憲謹記.”
15) “崇禎三戊午(1798)仲冬通政大夫承政院右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柳匡天序.”

지난 梁周翊(1722-1802)의 序文(1800)¹⁶⁾ 등 총 5개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반면, 호남의 대 유학자인 晦峯 安圭容(1873-1959)이 1920년대에 교육 및 강학 활동을 벌였던 전라남도 보성의 竹谷精舍 소장본 『湖南節義錄』은 4개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고, 그밖의 기관 소장본은 3개, 2개, 1개의 서문이 각각 첨부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내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湖南節義錄』은 서문의 출입이 있지만, 1799년에 高廷憲이 쓴 서문이 기본적으로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湖南節義錄』은 1799년 高廷憲이 쓴 서문을 기본적으로 수록하되, 印出할 때 印出者の 필요에 따라 각각의 序文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凡例>는 총 14항이 수록되어 있는데, ① 연대순으로 壬辰事實(壬辰倭亂, 1592)로부터 戊申事實(李麟佐의 난, 1728)까지 五難事를 기록한다는 것, ② 某公事實 四字를 표제어로 하고, 함께 殉節한 사람(同殉諸公)과 함께 창의한 사람(同倡諸公)의 사실을 기록한다는 것, ③ 癸巳(1593), 丁酉(1597), 戊戌(1598)의 殉節事實은 壬辰倭亂에 附記한다는 것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湖南節義錄總叙>는 ‘壬辰記事(1592)’, ‘甲子記事(1624)’, ‘丁卯記事(1627)’, ‘丙子記事(1636)’, ‘戊申記事(1728)’라는 副題를 달고 각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다만, 앞의 <凡例>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壬辰記事’의 副題 아래에는 癸巳(1593), 丁酉(1597), 戊戌(1598)의 일을 함께 병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本文>은 총 5권 5책으로, ‘壬辰義蹟’, ‘甲子義蹟’, ‘丁卯義蹟’, ‘丙子義蹟’, ‘戊申義蹟’ 등 5亂 義蹟의 아래에 대표적인 인물의 행적을 기록한 다음, 함께 순절하거나 창의한 인물에 대한 事實을 略述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5卷 5冊本 『湖南節義錄』의 편성체제는 아래 <표 1>과 같이 <序文>, <凡例>, <湖南節義錄總叙>, <本文>의 편제로 되어 있으며, 다만, <序文>의 수에 있어서 각 기관의 소장본은 1799년 高廷憲이 쓴 서문을 기본적으로 수록하되, 印出者の 필요에 따라 각각의 序文이 추가되어 序文의 出入에 차이만 있을 뿐, 板本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16) “萬曆壬辰後二百九年庚申(1800)孟夏忠壯公青溪六代孫梁周翊敬識.”

<표 1> 「湖南節義錄」의 편성체제

소장처(분류번호)	湖南節義錄序					凡例	總敍
	李秉模 (1800)	洪良浩 (1799)	柳匡天 (1798)	高廷憲 (1799)	梁周翊 (1800)		
고려대(만송 B12 A99)	○	○	○	○	○	○	○
고려대(대학원 B12 A99)	○	○	○	○	○	○	○
고려대(경화당 B12 A99)	○	○	○	○		○	○
죽곡정사	○	○		○	○	○	○
경북대(古920.051 호211)	-	○	○	○	-	○	○
경상대(古(일반)B9c 고73ㅎ)		○	○	○		○	○
국립중앙(한古朝56-나170)	-	○	-	○	-	○	○
부산대(OMO 2-7 53)		○		○		○	○
경북대(古中920.051호211)	-	-	○	○	-	○	○
카톨릭대(911.0553 호211유)			○	○		○	○
전남대(효안OC2H1호211ㄱ)			○	○		○	○
국립중앙(의산古2515-10)	-	-	-	○	-	○	○
규장각(古 4653 8)				○		○	○
규장각(古 4653 8A)				○		○	○
고려대(화산 B12 A99)				○		○	○
전남대(효안OC2H1호211ㄱ)				○		○	○

3.2 本文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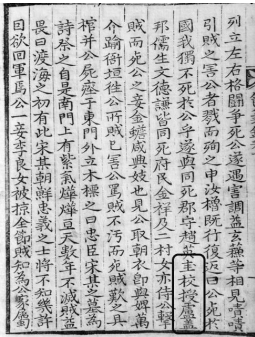
앞 절에서 국내의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5卷 5冊本 「湖南節義錄」은 수록된 <序文>의 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편성체제 및 내용이 모두 동일한 판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소장본 「湖南節義錄」(K2-491)은 현재 5卷 5冊 중 第5卷 1冊이 缺本인 상태로 洪良浩(1799)·柳匡天(1798)·高廷憲(1799) 등 3인의 <序文>과 <凡例>, <總敍>, <本文> 등의 편성체제를 이루고 있다. 藏書閣 소장본을 국내 기관의 소장본과 비교해 본 결과, 편성체제와 판종은 모두 동일하나, 본문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全南大學校 圖書館所藏本

(효안OC2H1호211 ㄱ)¹⁷⁾ 5卷 5冊 중 제1-4권을 장서각 소장본¹⁸⁾과 원문을 상호 비교해 본 결과, 총 130여 곳에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¹⁹⁾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3.2.1 誤字인 경우

- ㉠ 全南大本: 校授盧盖邦(卷1上 2張 2面 3行)
- ㉡ 藏書閣本: 教授盧盖邦(卷1上 2張 2面 3行)



<그림 2> 全南大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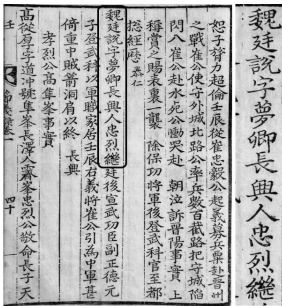
<그림 3> 藏書閣本

장서각본은 '校授'를 '教授'로 교정한 바, '校'를 '教'로 수정한 흔적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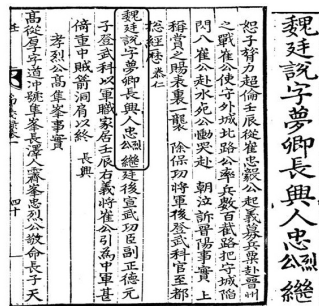
3.2.2 글자가 추가된 경우

- ㉢ 全南大本: 魏廷說字夢卿長興人忠烈(卷1下 40張 1面 6行)
- ㉣ 藏書閣本: 魏廷說字夢卿長興人忠烈公(卷1下 40張 1面6行)

17) 이하 '全南大本'으로 표기함.
 18) 이하 '藏書閣本'으로 표기함.
 19) 김동수 교수의 교감 결과를 참고하였다.



<그림 4> 全南大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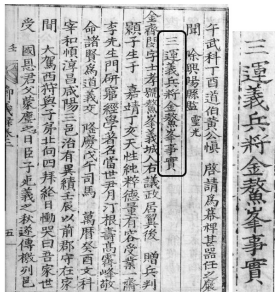
<그림 5> 藏書閣本

장서각본은 ‘忠烈’에 ‘公’자를 추가하면서, ‘烈公’을 小子 雙行으로 병기하였으며, 특히 교정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界線 右側에 탈락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3.2.3 명칭이 간략화 된 경우

- ① 全南大本: 三運義兵將金鰲峯事實(卷2上 5張 1面 3行)
- ② 藏書閣本: 三運將金鰲峯事實(卷2上 5張 1面 3行)

장서각본은 ‘三運義兵將’을 ‘三運將’으로 간략화하였으며, 간략화 과정에서 ‘金鰲峯事實’을 새로 補刻하였음이 보인다.



<그림 6> 全南大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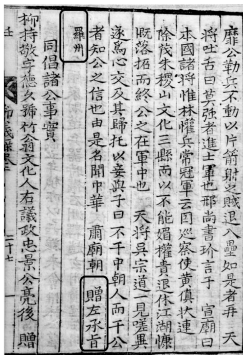
<그림 7> 藏書閣本

장서각본은 ‘三運義兵將’을 ‘三運將’으로 간략화하였으며, 간략화 과정에서 ‘金鰲峯事實’을 새로 補刻하였음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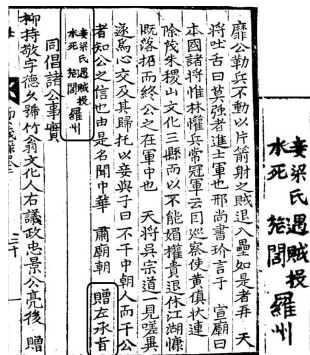
3.2.4 內容이 추가된 경우

- ㉠ 全南大本: 贈左承旨羅州(卷2上 27張 1面 7~8行)
- ㉡ 藏書閣本: 贈左承旨妾梁氏遇賊投水死旌閭羅州(卷2上 30張 1面 7~8行)

장서각본은 ‘妾梁氏遇賊投水死旌閭’ 내용이 ‘左承旨’와 ‘羅州’ 사이에 小字 雙行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兩本の 張次는 각각 27張과 30張으로 서로 다르게 張次가 표기되어 있는데, 全南大本은 ‘十六’, ‘又十六’, ‘二十五’, ‘又二十五’, ‘又二十五’ 등 판각 과정에서 실수로 張次가 중복되었지만, 장서각본은 이를 교정하여 張次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張次가 서로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8> 全南大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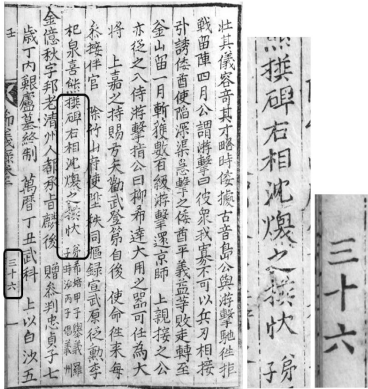


<그림 9> 藏書閣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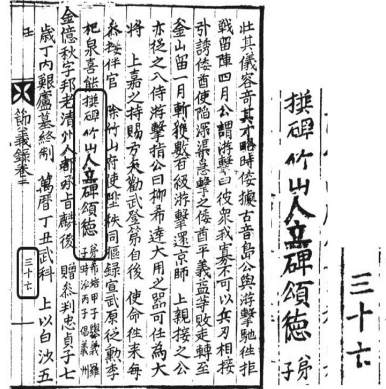
3.2.5 內容이 부분 대체된 경우

- ㉢ 全南大本: 杞泉喜熊撰碑右相沈煥之撰狀(卷2下 36張 1面 6行)

㉞ 藏書閣本: 杞泉喜熊撰碑竹山人立碑頌德(卷2下 37張 1面 6行)



<그림 10> 全南大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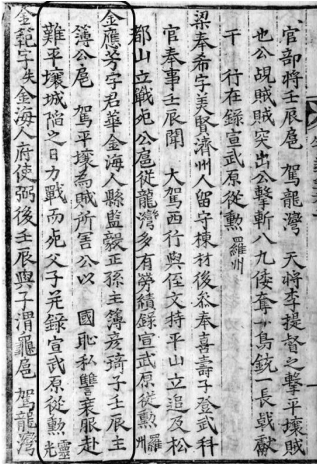


<그림 11> 藏書閣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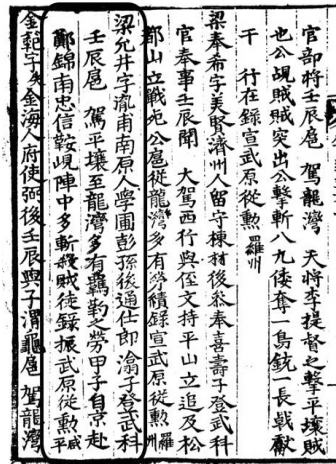
장서각본은 ‘右相沈煥之撰狀’을 ‘竹山人立碑頌德’으로 교정한 흔적이 뚜렷이 보이고 있다. 또한 兩本은 서로 張次도 다른데, 全南大本은 ‘又十二’, ‘十二’ 등 판각 과정에서 실수로 張次가 중복되었지만, 장서각본은 이를 교정하여 張次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3.2.6 내용이 완전 대체된 경우

- ㉠ 全南大本: 金應芳字君華金海人縣監毅正孫主簿彥琦子壬辰主簿公扈駕平壤爲賊所害公以國恥私誓裹服赴亂平壤城陷之日力戰而死父子并錄宣武原從勳[靈光](卷3下 23張 2面 7-9행)
- ㉡ 藏書閣本: 梁允井字胤甫南原人學圃彭孫後通仕郎滄子登武科壬辰扈駕平壤至龍灣多有羈勒之勞甲子自京赴鄭錦南忠信鞍峴陣中多斬殺賊徒錄振武原從勳[咸平](卷3下 23張 2面 7-9행)



<그림 12> 全南大本



<그림 13> 藏書閣本

全南大本은 卷3下 壬辰義蹟 《大駕扈從諸公事實》 條에 ‘金應芳’ 항목이 있지만, 藏書閣本은 ‘金應芳’ 항목을 삭제하고, ‘梁允井’ 항목을 補刻하여 삽입하였다. 장서각본의 壬辰義蹟 《大駕扈從諸公事實》 條에 ‘金應芳’ 항목이 삭제된 것은 卷2下 壬辰義蹟 《一道殉節諸公事實》 條에 이미 ‘金應芳’ 항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金應芳’ 항목을 삭제하고, ‘梁允井’ 항목을 補刻하여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서각본은 補刻하여 삽입한 흔적이 뚜렷이 보일 뿐만 아니라, 인쇄상태 또한 글자들이 많이 닳은 것을 볼 때, 校訂 補刻한 後刷本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표 2>와 같이 국내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5卷 5冊本 『湖南節義錄』은 본문의 내용이 모두 완전 일치한 동일 판본으로 밝혀졌다.

<표 2> 본문의 교감

소장처	사례		①		②		③		④		⑤		⑥	
	(a)	(b)	(a)	(b)	(a)	(b)	(a)	(b)	(a)	(b)	(a)	(b)	(a)	(b)
고려대(만송 B12 A99)	○		○		○		○		○		○		○	
고려대(대학원 B12 A99)	○		○		○		○		○		○		○	
고려대(경화당 B12 A99)	○		○		○		○		○		○		○	
죽곡정사	○		○		○		○		○		○		○	
경북대(古920.051 호211)	○		○		○		○		○		○		○	
경상대(古(일반)B9c 고73ㅎ)	○		○		○		○		○		○		○	
국립중앙(한古朝56-나170)	○		○		○		○		○		○		○	
부산대(OMO 2-7 53)	○		○		○		○		○		○		○	
경북대(古中920.051호211)	○		○		○		○		○		○		○	
카톨릭대(911.0553 호211유)	○		○		○		○		○		○		○	
전남대(효안OC2H1호211ㄱ)	○		○		○		○		○		○		○	
국립중앙(의산古2515-10)	○		○		○		○		○		○		○	
규장각(古 4653 8)	○		○		○		○		○		○		○	
규장각(古 4653 8A)	○		○		○		○		○		○		○	
고려대(화산 B12 A99)	○		○		○		○		○		○		○	
전남대(OC2H1호211ㄱ)			○		○		○		○		○		○	
장서각(K2-491)		○		○		○		○		○		○		○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인 全南大學校 圖書館所藏本(효안OC2H1호211ㄱ) 5卷 5冊과 第5卷 1冊이 缺本인 장서각 소장본 4卷 4冊(K2-491)을 1권부터 4권까지 원문을 상호 비교해 본 결과, 총 130여 곳에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장서각 소장본은 1799년 初印된 이후 誤字, 글자의 추가, 명칭의 간략화, 내용의 부분적 추가 또는 완전 대체 등의 補刻 흔적이 뚜렷한 것을 고려해 볼 때, 1799년 初刊板을 校訂 補刻하여 인쇄한 後刷本으로 판단된다.

4. 內容分析

앞 절에서 장서각 소장본 『湖南節義錄』 零本 4冊은 1799년의 刊行本을 校訂 補刻한 後刷本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장서각 소장본은 현재 第5卷이 결여된 零本 4冊이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5卷 5冊本을 대상으로 5亂事로 대별하여 各事實別 殉倡者數를 분석해 보고, 이를 종합하여 出身地別 殉倡者數를 살펴보고자 한다.

4.1 5亂事 各事實別 殉倡者數

4.1.1 壬辰義蹟

壬辰義蹟은 卷1부터 卷4上까지 壬辰(1592), 癸巳(1593), 丁酉(1597), 戊戌(1598)의 殉倡事實을 병기하고 있으며, 『湖南節義錄』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各事實別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卷1상의 《忠烈公宋泉谷事實》²⁰⁾은 1592년 4월 15일의 東萊城 전투에서 전사한 宋象賢, 趙英圭 등 5인의 同殉者 行적을 다루고 있는데, 이 가운데 宋鳳壽는 事實이 不傳하여 이름만 수록되어 있다. 《忠烈公高霽峰事實》²¹⁾은 1592년 7월 錦山에서 순절한 高敬命, 高仁厚 등 同殉者 27인과 同倡者로 朴光玉, 宋濟民 등 35인의 行적이 附記되어 있다.

卷1下는 거의 대부분 1593년 6월 2차 진주성 싸움에서 전사하거나 순절한 사람과 同倡者들의 行적을 수록하고 있는데, 《文烈公倡義使金健齋事實》²²⁾은 判官·의병의 지휘관인 都節制가 되어 항전하다가, 진주성이 함락되자 아들인 象乾과 함께 南江에 투신 자결한 金千鎰, 金象乾 등 28인의 同殉者와 任鍾,

20) 宋象賢(1551-1592).

21) 高敬命(1533-1592).

22) 金千鎰(1537-1593). 자는 士重, 호는 健齋 또는 克念堂.

李光翼 등 同倡者 19인, 《武愨黃公事實》²³⁾은 진주성 싸움에서 전사한 黃進, 宋悌 등 同殉者 11인과 魏大器, 魯鴻 등 同倡者 3인, 《忠毅公崔日休堂事實》²⁴⁾은 南江에 투신 자결한 崔慶會, 文弘獻 등 同殉者 19인과 崔弘載, 崔弘宇 등 同倡者 7인, 《孝烈公高隼峯事實》²⁵⁾은 南江에 투신 자결한 高從厚, 吳宥 등 同殉者 14인과 金應鼎 등 同倡者 3인, 《彪義將沈公事實》²⁶⁾은 南江에 투신 자결한 沈友信, 林逗春 등 同殉者 7인, 《忠毅公張公事實》²⁷⁾은 진주성 싸움에서 전사한 張潤, 南應凱 등 同殉者 4인, 《飛義將閔公事實》²⁸⁾은 진주성 싸움에서 전사한 閔汝雲, 鄭允謹 등 同殉者 2인, 《繼義兵將崔公事實》²⁹⁾에는 1593년 진주성에서 弟 崔慶會가 殉節하자 倡義한 崔慶長, 金允明 등 6인의 同倡者 行적을 수록하고 있다.

卷2상의 《忠勇將金公事實》³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담양에서 의병을 일으킨 金德齡, 崔聃齡 등 同倡者 6인, 《三運義兵將金鰲峯事實》³¹⁾은 金齊閔, 金擘 등 同倡者 13인, 《召募使李公事實》³²⁾은 李廷灣 등 同倡者 5인, 《左義兵將任公事實》³³⁾은 任啓英, 文緯世 등 同倡者 21인, 《敵愾將桃灘邊公事實》³⁴⁾은 邊士貞, 金定 등 同倡者 9인,³⁵⁾ 《竹川朴公事實》³⁶⁾은 朴光前, 宋弘烈 등 同倡者 4인, 《昭義將習靜林公事實》³⁷⁾은 林權, 柳持敬 등 同倡者 9인, 《義毅

23) 黃進(1550-1593). 자는 明甫, 호는 蛾述堂.

24) 崔慶會(1532-1593). 자는 善遇, 호는 三溪 또는 日休堂.

25) 高從厚(1554-1593). 자는 道冲, 호는 隼峯.

26) 沈友信(1544-1593). 자는 公擇.

27) 張潤(1552-1593). 자는 明甫.

28) 閔汝運(?-1593). 자는 龍從.

29) 崔慶長(1529-1601). 자는 善林, 호는 竹溪.

30) 金德齡(1567-1596). 자는 景樹.

31) 金齊閔(1527-1599). 자는 士孝, 호는 鰲峯.

32) 李廷灣, 자는 文父.

33) 任啓英(1528-1597). 자는 弘甫, 호는 三島.

34) 邊士貞(1529-1596). 자는 仲幹, 호는 桃灘.

35) 同倡者 중 李潛은 欄外에 ‘殉節晋州’로 표기되어 있음(卷1, 49).

36) 朴光前(1526-1597). 자는 顯哉, 호는 竹川.

37) 林權(1561-1608). 字는 子中, 호는 習靜.

將涵齋奇公事實》³⁸⁾은 奇孝曾, 李宏中 등 同募者 17인, 《督運使邊公事實》³⁹⁾은 邊以中 1인의 행적이 수록되어 있다.

卷2下는 壬辰倭亂 때에 국가를 위해 순절하거나 거의한 사람들을 《一道殉節諸公事實》과 《一道舉義諸公事實》로 나누어 그들의 행적을 수록하고 있다. 먼저 《一道殉節諸公事實》에는 泰仁의 白光彦과 羅州의 崔澳 등 98인의 殉節者의 행적을 다루고 있고, 《一道舉義諸公事實》에는 南原의 丁焰과 光州의 朴宗挺 등 舉義者 156인의 행적을 수록하고 있다.

卷3상의 《文烈公趙重峰憲同殉諸公事實》⁴⁰⁾은 1593년 8월 18일 금산에서 의병장인 趙憲과 함께 전사한 鄭民秀, 韓應聖 등 同殉者 17인, 《巡察使權公慄參佐諸公事實》은 權慄將軍의 막하에 편입하여 1593년의 행주대첩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 申汝樑 등 參佐者 38인, 《忠武李公舜臣同殉諸公事實》⁴¹⁾은 鄭運, 鄭麒壽 등 同殉者 58인과 丁景達, 崔希亮 등 參佐者 86인이 수록되어 있는데, 參佐者 86인 가운데 宋德駟은 欄外에 '殉節深河'라 부기되어 있다. 《李兵使福南同殉諸公事實》⁴²⁾은 1597년 정유재란 때 全羅道兵馬節度使 李福男과 함께 남원성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한 金敬老, 申浩 등 同殉者 40인, 《李水使億祺同殉諸公事實》⁴³⁾은 鄭鷹, 金彦春 등 同殉者 7인과 鄭忠良 등 參佐者 3인의 행적이 수록되어 있다.

卷3下부터 卷4上은 주로 宣祖의 大駕 및 宗廟에 모셔진 神主를 모시고 호종한 사람들의 행적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卷3下的 《大駕扈從諸公事實》은 宣祖를 扈從한 奇孝諫, 白振南 등 大駕扈從者 141인이 수록되어 있다.

卷4상의 《宗廟扈從任公事實》⁴⁴⁾은 宗廟의 신주를 받들고 임금의 행재소까지 扈從한 宗廟扈從者 任發英 1인, 《直殿扈從諸公事實》은 尹喆 등 6인의

38) 奇孝曾(1550-?). 자는 伯魯, 호는 涵齋.

39) 邊以中(1546-1611). 자는 彦時, 호는 望庵.

40) 趙憲(1544-1592). 자는 汝式, 호는 重峯·陶原·後栗.

41) 李舜臣(1545-1598). 자는 立夫.

42) 李福男(1555-1597). 자는 綏甫, 시호는 忠壯.

43) 李億祺(1561-1597). 자는 景受, 시호는 毅愍.

44) 任發英. 자는 時彦.

행적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異域全節에는 일본에 포로로 잡혀가서도 절개를 지킨 姜沆 등 9인의 행적을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他道附錄에는 鄭得說 등 10인의 행적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행적의 끝에는 ‘後孫居全州’와 같이 小字로 附記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서 활약하다 순절한 他道 출신자들이지만, 이들의 후손이 호남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湖南節義錄에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4.1.2 甲子義蹟

卷4中에는 1624년 甲子에 일어난 李适의 亂을 평정할 때 공을 세운 사람들의 殉倡事實을 수록하고 있다. 각 事實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殉節林公事實》⁴⁵⁾은 1624년 李适의 亂 때 廣州 牧師로 재임 도중 순절한 林檜의 행적이 수록되어 있고, 《倡義諸公事實》에는 辛惟一, 高傳川 등 同倡者 80인, 《樹勳諸公事實》에는 金完, 鄭忠信 등 祿勳者 46인, 《扈從諸公事實》에는 高弘建, 愼天翊 등 33인의 殉倡事實이 수록되어 있다.

4.1.3 丁卯義蹟

卷4下는 丁卯年(1627) 1월 중순부터 3월 초순까지 약 2개월간 지속되었던 후금과 조선 사이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을 세운 사람들의 殉倡事實을 수록하고 있다. 각 事實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殉節諸公事實》에 金浚, 全尙毅 등 同殉者 7인, 《牛山安公事實》⁴⁶⁾에 安邦俊 1인, 《靜軒高公事實》⁴⁷⁾에 高循厚 1인, 《同倡諸公事實》에 申澤, 金德普 등 18인, 《樹勳諸公事實》에 金汝水 등 同倡者 6인의 행적이 수록되어 있다.

45) 林檜(1562-1624). 자는 公直, 호는 觀海.

46) 安邦俊(1573-1654). 자는 士彦, 호는 隱峯.

47) 高循厚(?). 자는 道常, 호는 靜軒.

4.1.4 丙子義蹟

卷5上은 丙子年(1636) 12월부터 1637년 1월까지 淸과 조선 사이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을 세운 사람들의 殉倡事實을 수록하고 있다. 각 事實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斥和諸公事實》에 李興淳, 金地粹 등 斥和者 10인, 《殉節諸公事實》에 李尙吉, 白善男 등 殉節者 19인, 《倡義諸公事實》에 李起淳, 羅海鳳 등 143인, 《扈從諸公事實》에 奇宗獻, 柳璞 등 36인, 異域全節에 羅德憲 등 3인의 행적이 수록되어 있다.

4.1.5 戊申義蹟

卷5中은 戊申年(1728)에 일어난 李麟佐의 亂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의 공적을 수록하고 있는데, 《倡義諸公事實》에 鄭鳳徵 등 同倡者 48인, 《樹勳諸公事實》에 閔濟章 등 51인의 功勳者을 행적을 다루고 있다.

4.1.6 附錄

卷5下는 附錄으로 지금까지 다루었던 5亂事 이외에 乙卯年(1555)의 왜구 침입과, 丁巳年(1557)의 虜의 침입, 戊午年(1618) 明에 倂建되어 金의 침입을 물리친 공적을 다루고 있다. 먼저 1555년의 乙卯義蹟에는 梁達泗와 白世禮 등 2인, 1557년의 丁巳義蹟에는 宋文祖와 崔希汀 등 2인, 1618년의 戊午義蹟에는 右營將으로 출전하여 전사한 李有吉 등 9인의 행적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湖南節義錄』을 5亂事로 대별하여 각 事實別로 殉倡者 인원수를 분석해 본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5亂事 각 事實別 殉倡者數

5亂事	收錄 卷	事實	同 殉	同 倡	同 募	舉 義	督 運	參 佐	扈 從	全 節	樹 動	斥 和	계
壬辰義蹟	卷1上	忠烈公宋泉谷事實	5										5
		忠烈公高霽峰事實	27	35									62
	卷1下	文烈公倡義使金健齋事實	28	19									47
		武愨黃公事實	11	3									14
		忠毅公崔日休堂事實	19	7									26
		孝烈公高準峯事實	14	3									17
		彪義將沈公事實	7										7
		忠毅公張公事實	4										4
		飛義將閔公事實	2										2
		繼義兵將崔公事實		6									6
	卷2上	忠勇將金公事實		6									6
		三運義兵將金鰲峯事實		13									13
		召募使李公事實		5									5
		左義兵將任公事實		21									21
		敵愾將桃灘邊公事實		9									9
		竹川朴公事實		4									4
		昭義將習靜林公事實		9									9
		義殺將涵齋奇公事實			17								17
		督運使邊公事實					1						1
	卷2下	一道殉節諸公事實	98										98
		一道舉義諸公事實				156							156
	卷3上	文烈公趙重峰憲同殉諸公事實	17										17
		巡察使權公慄參佐諸公事實						38					38
		忠武李公舜臣同殉諸公事實	58					86					144
		李兵使福南同殉諸公事實	40										40
		李水使億祺同殉諸公事實	6					3					9
	卷3下	大駕扈從諸公事實							141				141
	卷4上	宗廟扈從任公事實							1				1
		直殿扈從諸公事實							6				6
		異域全節								9			9
		他道附錄	3	3			4						10
甲子義蹟	卷4中	殉節林公事實	1	80									81
		樹動諸公事實									46		46
		扈從諸公事實							33				33
丁卯義蹟	卷4下	殉節諸公事實	7										7

		牛山安公事實				1								1
		靜軒高公事實				1								1
		同倡諸公事實		18										18
		樹動諸公事實									6			6
丙子義蹟	卷5上	斥和諸公事實										10		10
		殉節諸公事實	19											19
		倡義諸公事實		143										143
		扈從諸公事實							36					36
		異域全節								3				3
戊申義蹟	卷5中	倡義諸公事實		48										48
		樹動諸公事實									51			51
附錄	卷5下	乙卯義蹟	1	1										2
		丁巳義蹟	1	1										2
		戊午義蹟	6					1		2				9
		계	374	434	17	158	1	132	217	14	103	10		1,460

분석 결과, 『湖南節義錄』에는 총 1460명의 殉倡者⁴⁸⁾가 수록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5亂事 別로 순창자를 분석해 본 결과, 壬辰義蹟은 944명(殉節者 339명, 功勳者 605명), 甲子義蹟 160명(殉節者 1명, 功勳者 159명), 丁卯義蹟 33명(殉節者 7명, 功勳者 26명), 丙子義蹟 211명(殉節者 19명, 功勳者 192명), 戊申義蹟 99명(功勳者 99명), 附錄(乙卯義蹟, 丁巳義蹟, 戊午義蹟) 13명(殉節者 8명, 功勳者 5명) 등으로, 壬辰義蹟에 가장 많은 순창자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어서 丙子義蹟 → 甲子義蹟 → 戊申義蹟 → 丁卯義蹟 → 附錄(乙卯義蹟, 丁巳義蹟, 戊午義蹟)의 순의 순창자 공훈 사실이 수록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殉倡者 1,460명을 殉節者와 功勳者를 분석해 본 결과, 殉節者 374명, 功勳者 1,086명으로 확인되었다.

4.2 지역분석

앞 절에서 각 事實別로 수록된 인원수를 분석해 보았다. 본 절에서는 5難事로 대별하여 出身地別 殉倡者 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48) 본 논고에서 殉倡者는 殉節者와 功勳者(同倡者, 同募者, 舉義者, 督運者, 參佐者, 扈從者, 全節者, 樹動者, 斥和者)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4.2.1 壬辰義蹟

壬辰義蹟에는 康津 등 49개 지역에 총 944명이 분포되어 있다. 이들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순창자를 배출한 지역은 羅州 78명(殉節者 30/功勳者 48), 靈光 73명(18/55), 興陽 68명(14/54), 長興 61명(13/48), 南原 57명(29/28) 등의 순으로 50명 이상은 6개 지역, 50~41명은 寶城 등 3개 지역, 40~31명은 順天 등 3개 지역, 30~21명은 寶城과 海南 2개 지역, 20~11명은 南平 등 9개 지역, 10명 미만은 金堤 등 26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4.2.2 甲子義蹟

甲子義蹟에는 靈光 등 30개 지역에 걸쳐 총 160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李适의 亂이 일어났을 때, 廣州 牧使로 재임 중 이괄의 군사에게 살해당한 羅州 출신 殉節者 林檜를 제외하고, 모두 功勳者로 확인되었다. 가장 많은 순창자가 나온 지역은 靈光 31명, 長興 25명, 靈巖 14명, 全州 11명 등의 순이며, 10명 미만의 지역은 羅州 등 26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4.2.3 丁卯義蹟

丁卯義蹟에는 光州 등 15개 지역에 총 33명이 수록되어 있다. 출신 지역별로 살펴보면, 光州 9명(1/8), 長興 7명(1/6)의 순창자가 수록되어 있으며, 古阜 등 4개 지역은 각각 2명, 南原 등 9개 지역은 각각 1명의 순창자가 수록되어 있다.

4.2.4 丙子義蹟

丙子義蹟에는 寶城 등 35개 지역에 걸쳐 총 211명의 순창자가 수록되어 있다. 출신 지역별로는 寶城 43명(1/42), 長興 18명(1/17), 興陽 14명(1/13) 등의 순이

며, 羅州 등 3개 지역은 9명, 古阜와 咸平은 각각 7명, 南平 등 3개 지역은 각각 6명, 金堤 등 3개 지역은 각각 5명, 康津 등 5개 지역은 각각 4명, 綾州 등 4개 지역은 각각 3명, 谷城 등 6개 지역은 각각 2명, 高敞 등 5개 지역은 각각 1명으로 확인되었다.

4.2.5 戊申義蹟

戊申義蹟에는 南原 등 29개 지역에 걸쳐 총 99명의 공훈자가 수록되어 있다. 출신 지역별로는 南原 22명, 求禮 8명, 靈光 7명 등의 순이며, 長興과 全州 각각 6명, 谷成과 雲峯 각각 5명, 南平和 茂長 각각 4명, 光州 등 5개 지역은 각각 3명, 昌平과 興德 각각 2명, 古阜 등 13개 지역은 각각 1명으로 확인되었다.

4.2.6 附錄

附錄에는 13명의 순창자가 수록되어 있는데, 출신 지역별로 살펴보면, 興陽 3명(2/1), 康津 2명(1/1), 扶安 2명(1/1), 全州 2명(2/0), 高阜와 靈巖은 功勳者 각 1명, 長城과 井邑 殉節者 각 1명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湖南節義錄』을 5難事로 대별하여 出身地別 殉倡者 수를 분석해 본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5亂事 각 出身地別 殉倡者數

5亂事 地域	壬辰義蹟		甲子義蹟		丁卯義蹟		丙子義蹟		戊申義蹟		附錄		계		총계
	殉節	功勳	殉節	功勳	殉節	功勳	殉節	功勳	殉節	功勳	殉節	功勳	殉節	功勳	
康津	12	23		2			1	3			1	1	14	29	43
古阜	2	12		3	2		2	5		1		1	6	22	28
高山	1	3		1									1	4	5
高敞	4	5		2				1					4	8	12
谷城	1	4					1	1		5			2	10	12

「湖南節義錄」에 관한 研究

5亂事 地域	壬辰義蹟		甲子義蹟		丁卯義蹟		丙子義蹟		戊申義蹟		附錄		계		총계
	殉節	功勳	殉節	功勳	殉節	功勳	殉節	功勳	殉節	功勳	殉節	功勳	殉節	功勳	
光陽	1												1		1
光州	19	33		7	1	8		4		3			20	55	75
求禮	7									8			7	8	15
金溝		2												2	2
錦山	4												4		4
金堤	2	8		7		2	2	3		1			4	21	25
羅州	30	48	1	7				9		1			31	65	96
樂安	3	1						1					3	2	5
南原	29	28		6		1	2	7		22			31	64	95
南平	10	9		3		1		6		4			10	23	33
綾州	13	6		2				3					13	11	24
潭陽	1	6		5				5		1			1	17	18
同福	3	7								1			3	8	11
龍安	1												1		1
臨陂		2		1						1				4	4
萬頃								1						1	1
務安	27	16		5				2		1			27	24	51
茂長	2	16		7				4		4			2	31	33
未詳	2												2		2
寶城	14	35		3		1	1	42		1			15	82	97
扶安	4	9		4				5			1	1	5	19	24
淳昌	4	5		1				3		1			4	10	14
順天	14	25		1			1	1		1			14	28	42
礪山	2												2		2
靈光	18	55		31		1		9		7			18	103	121
靈巖	9	26		14		1		4		1		1	9	47	56
玉果	1	2		2	1								2	4	6
沃溝	1												1		1
龍潭		1												1	1
雲峯	1	2								5			1	7	8
益山	1	4					1	2					2	6	8
任實	4	6						6					4	12	16
長城	13	13		1	1	1		2			1		15	17	32
長水										1				1	1
長興	13	48		25	1	6	1	17		6			15	102	117
全州	4	14		11		1		13		6	2		6	45	51
井邑	6	6					1	1			1		8	7	15

5亂事 地域	壬辰義蹟		甲子義蹟		丁卯義蹟		丙子義蹟		戊申義蹟		附錄		계		총계
	殉節	功勳	殉節	功勳	殉節	功勳	殉節	功勳	殉節	功勳	殉節	功勳	殉節	功勳	
珍島		3						1						4	4
鎮安							1	1		3			1	4	5
昌平	2	4		1				3		2			2	10	12
泰仁	5	10		1			3	3		3			8	17	25
咸悅	2												2		2
咸平	18	23		2		1	2	5		1			20	32	52
海南	6	18		1				4					6	23	29
和順	2	4						2		3			2	9	11
興德	7	9		2		2				2			7	15	22
興陽	14	54		1	1		1	13		3	2	1	18	72	90
계	339	605	1	159	7	26	19	192		99	8	5	374	1,086	1,460

분석 결과, 『湖南節義錄』에 수록된 殉倡者 1,460명은 총 52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출신지별로 살펴보면, 殉節者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羅州와 南原이 각 31명, 務安 27명, 光州와 咸平 각 20명 등의 순이며, 功勳者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靈光 103명, 長興 102명, 寶城 82명, 興陽 72명, 羅州 65명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殉節者와 功勳者를 종합하여 殉倡者의 출신지별 빈도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靈光 121명(18/103), 長興 117명(15/102), 寶城 97명(15/82), 羅州 96명(31/65), 南原 95명(31/64), 興陽 90명(18/72), 光州 75명(20/55) 등의 순이며, 그밖에 60~51명은 靈巖 등 4개 지역, 50~41명은 康津 등 2개 지역, 40~31명은 茂長 등 3개 지역, 30~21명은 海南 등 7개 지역, 20~11명은 潭陽 등 10개 지역, 10명 미만은 雲峯 등 19개 지역으로 밝혀졌다.

5. 結論

지금까지 의병장 高敬命(1533-1592)의 7대손 高廷憲이 1799년에 편찬한 『湖南節義錄』에 대하여 편찬 배경 및 간행처, 편성체제와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湖南節義錄」의 편찬배경은 1592년 임진왜란으로부터 1728년 李麟佐의 亂까지 5難事 舉義者들의 의로운 舉事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이 책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와 충의의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하며, 나라에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잃어버리지 않게끔 할 뿐만 아니라, 신하들에게 의를 격려하기 위해 편찬하였다.

둘째, 「湖南節義錄」은 1799년 여름 全羅道 順天 松廣寺에 소속된 刻手 및 鍊板者를 동원하여 판각하였고, 印刷 또한 板刻과 동시에 1799년 仲夏에 順天 松廣寺에서 初印하였음을 추정하였다.

셋째, 5卷 5冊本 「湖南節義錄」의 편성체제는 <序文>, <凡例>, <湖南節義錄 總敍>, <本文>의 편제로 되어 있으며, <序文>은 1799년 高廷憲이 쓴 서문을 기본적으로 수록하되, 印出者의 필요에 따라 각각의 序文이 추가되는 등 序文의 出入에 차이만 있을 뿐, 板本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넷째, 5卷 5冊 가운데 第5卷 1冊이 缺本인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所藏本 4卷 4冊(K2-491)을 全南大學校 圖書館 所藏本(효안OC2H1호211ㄱ)과 원문을 비교해 본 결과, 총 130여 곳에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는 바, 藏書閣 所藏本은 誤字의 정정, 글자의 추가, 명칭의 간략화, 내용의 부분적 추가 또는 완전 대체 등의 補刻 흔적이 뚜렷한 것을 볼 때, 藏書閣 所藏本 1799년 初印된 이후 校訂 補刻한 後刷本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湖南節義錄」을 5亂事別로 순창자를 분석해 본 결과, 壬辰義蹟은 944명(殉節者 339명, 功勳者 605명), 甲子義蹟 160명(殉節者 1명, 功勳者 159명), 丁卯義蹟 33명(殉節者 7명, 功勳者 26명), 丙子義蹟 211명(殉節者 19명, 功勳者 192명), 戊申義蹟 99명(功勳者 99명), 附錄(乙卯義蹟, 丁巳義蹟, 戊午義蹟) 13명(殉節者 8명, 功勳者 5명) 등 총 1,460명의 殉倡者가 수록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殉倡者 1,460명을 殉節者와 功勳者를 분석해 본 결과, 殉節者 374명, 功勳者 1,086명으로 확인되었다.

여섯째, 「湖南節義錄」에 수록된 殉倡者 1,460명을 52개 출신지역별로 분석해 본 결과, 靈光 121명(殉節者 18/ 功勳者103), 長興 117명(15/102), 寶城 97명

(15/82), 羅州 96명(31/65), 南原 95명(31/64), 興陽 90명(18/72), 光州 75명(20/55) 등의 순이며, 그밖에 60~51명은 靈巖 등 4개 지역, 50~41명은 康津 등 2개 지역, 40~31명은 茂長 등 3개 지역, 30~21명은 海南 등 7개 지역, 20~11명은 潭陽 등 10개 지역, 10명 미만은 雲峯 등 19개 지역으로 밝혀졌다.

<참고문헌>

- 『湖南節義錄』. 경북대학교 도서관 소장본(古920.051 호211).
- 『湖南節義錄』. 경북대학교 도서관 소장본(古中920.051호211).
- 『湖南節義錄』. 경상대학교 남명학관 문천각 소장본(古(일반)B9c 고73호).
- 『湖南節義錄』.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경화당 B12 A99).
- 『湖南節義錄』.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대학원 B12 A99).
- 『湖南節義錄』.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송 B12 A99).
- 『湖南節義錄』.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화산 B12 A99).
- 『湖南節義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산古2515-10).
- 『湖南節義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古朝56-나170).
- 『湖南節義錄』.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본(OMO 2-7 53).
- 『湖南節義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古 4653 8).
- 『湖南節義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古 4653 8A).
- 『湖南節義錄』. 전남대학교 도서관 소장본(효안OC2H1호211ㄱ).
- 『湖南節義錄』. 전남대학교 도서관 소장본(OC2H1호211ㄱ).
- 『湖南節義錄』. 竹谷精舍 소장본.
- 『湖南節義錄』. 카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911.0553 호211유).
- 『湖南節義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전자도서관 소장본(K2-491).
- 盧基春. “順天 松廣寺 開板佛事に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25집(2003. 6). 447-476.
- 盧基春. “順天 松廣寺 開板佛事に 관한 연구(II).” 『서지학연구』 26집(2003. 12).

303-346.

하태규. “임란기에 있어서 진북인의 창의활동-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의 분석을 중심으로.” 『전라문화논총』 Vol.3(1989). 191-223.

김정림. “湖南節義錄의 性格에 관한 研究-收錄된 人物들에 대한 分析과 관련하여-.” 碩士學位論文.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981.

<<http://cafe.daum.net/yejanghoi>>.

